LG디스플레이, DMZ 민통선 생태숲 복원 활동 나서

입력 2021.05.30 10:00 수정 2021.05.30 08:49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세계 환경의 날'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전개
귀룽나무 600 그루 식재…ESG 경영 강화

LG디스플레이가 임직원 가족 봉사단과 함께 DMZ 인근 민간인통제선 지역을 찾아 귀룽나무 600그루를 식재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임직원 가족 봉사단이 나무를 심고 있는 모습.ⓒ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가 임직원 가족 봉사단과 함께 DMZ 인근 민간인통제선 지역을 찾아 귀룽나무 600그루를 식재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임직원 가족 봉사단이 나무를 심고 있는 모습.ⓒ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지켜나가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다.

LG디스플레이 임직원 가족 봉사단은 6월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DMZ 인근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지역을 찾아 생태숲 복원을 위해 귀룽나무 600그루를 식재했다고 30일 밝혔다.

DMZ 인근 지역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한반도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이 서식중인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태학적 보존 가치가 높아 환경 보호가 필요한 장소로 꼽힌다.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봉사단은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과 수해로 훼손된 민통선 지역의 하천인 수내천 일대에 나무를 심어 생태숲을 복원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힘을 보탰다.

이날 봉사단이 심은 나무는 '나무 돌보미'를 자처한 600여명의 임직원들이 지난 한달 간 각 가정에서 정성껏 키워온 귀룽나무 묘목이다.

두 아이와 함께 나무심기에 참여한 최창현 책임은 "지속 가능한 환경과 생태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일들을 찾아 더 많이 실천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LG디스플레이는 환경 사회공헌 활동 외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친환경 제품 생산 확대 등 선진적인 환경·에너지 경영 체계를 도입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지켜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 중이다.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사회공헌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